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된 조선시대 미용법 분석 -재매개성 이론을 중심으로-

방기정[†]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The Research is about a TV Documentary on the Joseon Dynasty's Beauty Makeup -Focus is on the Re-mediation-

Kee-Jung Barn[†]

Dept. of Beauty and Health Management, Daeje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Classification of the Joseon Dynasty's Beauty characteristics were expressed in a TV documentary focusing on a Re-mediation theory. The methods of study comprised of library research, Internet search, and using TV documentary program case studies. The work this Researcher makeup in the manufacture from the documentary in which the methods the Joseon. Dynasty expressed were selected. The literature, and preceding research, were referred to as a way to help organize the Joseon Dynasty's 'gi-saeng Hwang Jin-Hee', 'woman of royal family', and way of make-up of 'sadae-bu lady'. The TV documentary programs selected were 'MBC special' and '2 parts of channel A documentary special'. First, the improvisation of nature and simultaneity expressed in the Joseon Dynasty's usage of make-up is shown through the interview form reflecting the make-up tools and age direction of the scenes or expert. Second, the interactivity and reality are well seen through the row equivalent in which the model seems to directly use the dressing demonstration of the expert and cosmetics material. Third, the cultural expandability and unexpectedness show through the production of situations which are viewed from the explanation of the narration and letter subtitles and drama.

Key words: Re-Mediation(재 매개성), TV Documentary(TV 다큐멘터리), Joseon Dynasty Beauty Makeup(조선시대 미용법)

[†]Corresponding author: Kee-Jung Barn[†] Tel.+82-42-280-2916 Fax.+82-42-280-2389
E-mail :wp2848@nate.com

I. 서론

미디어는 인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술적 발달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를 차용하거나, 개선, 개조, 흡수하면서 새로워지고, 기존의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개선시킨다.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다(Kim, J., 2012). 볼터와 그루신은 이러한 미디어의 발전현상에 관계를 '재 매개(Re-Mediation)'라 지칭하고 비 매개(Immediacy)와 하이퍼매개(Hyper Mediacy)라는 두 가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Joe, Y., 2011).

TV 다큐멘터리가 묘사하는 대상은 다큐멘터리의 묘사와는 상관없이 또는 다큐멘터리가 그 존재를 묘사하지 않았을 때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미학적인 장치를 통한 재현은 현실을 지시하면서도 왜곡하거나 변화시킬 가능성을 처음부터 안고 출발한다. 다큐멘터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격려하여 개인적이나 사회적 가치, 조건, 원인, 또는 조직체(組織體) 속에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자신과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 사색하게 만드는 유익성(有益性)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류 드라마와 K-POP 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식 화장법의 비밀과 화장품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인에게 '한국적인 아름다움(Korean Beauty)'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는 돋보기이면서 기준이 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한꺼번에 다채롭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orean Beauty'의 깊숙한 뿌리에 존재하는 한국여성들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 문화사와 한국전통 향장품 기술의 우수함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미(K-Beauty)를 통해 한국적인 미용법과 화장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활용이 되어 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통미용법에 대한 유산이 많으나, 제작법과 미용방법에 대한 심도 깊고 자세한 분석 연구가 없어서 전통미용 문화유산에 실질적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제에 가까운 기법을 찾아서 이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미용문화의 새로운 규명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디어 종류 중에서 TV 다큐멘터리 표현 요소에서 재현이라는 도구를 통해 표현된 조선시대 미용법 특성을 재매개성 이론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다큐멘터리의 재현요소를 통하여 표현된 한국의 미용문화의 심도 깊고 유형별 분석을 시도한 기초연구에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큐멘터리의 정의 및 특성

1) 다큐멘터리의 정의

다큐멘터리란 용어는 원래 '기록(記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다큐망 테르(Documentaire)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음에 영화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의 '기록'이라는 말은 곧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의 기록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적 내용을 그 전제(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에 어원(語原)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영국의 초기 다큐멘터리 영화 운동을 주도하고 다큐멘터리 개념과 전통을 확립한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이었다. 그는 '다큐멘터리란 삶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寫眞)이며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창조적으로 해석(解釋)하는 것'이라 정의했다(Nam, S., 1992).

다큐멘터리는 다른 여타의 장르와 구별되는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루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꾸며진 허구의 세계가 아닌 현실을 소재로 디렉터(Director)의 시각을 통해 작품으로 형성되는 예술형식이다. 즉, 상상이 아닌 실존하는 사람, 행동, 장소, 그리고 사전 속에 담겨진 가치를 탐구하여 영상언어로 전달하는 진실의 형상화 작업이 바로 다큐멘터리인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예술적인 거짓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빙성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한다.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진실성은 중요한 요체이며 또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실제적인 요소들을 통해 도달하는 사

실적인 진실을 의미한다. 무대화되지 않은 현실세계(現實世界)를 묘사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주제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본질적으로 표현 매체(媒體)로서 보다는 기록하는 기계로 간주되고 있다. 테크닉보다는 작품의 주제가 우선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현실세계를 가능한 손상,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려는 제작태도 때문에 간혹 '창조(創造)의 예술'이 아니라 '존재(存在)의 예술'로 불리기도 한다(Jun, P., 1995). 이처럼 영화에서 시작한 다큐멘터리의 본질적 모습은 TV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TV는 영화에 비해 사실적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는 현실성(現實性)과 동시성(同時性)이라는 강점을 가지며 영화 다큐멘터리의 그것에 비해 일반시청자들에게 보다 호소력 깊게 다가서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있어서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영상과 나레이션(Narration)을 통해 논픽션(Non-Fiction)의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Broadcasting Commission, 1993). 다큐멘터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다큐멘터리 개념의 정의를 통해 볼 때 대개 방송계에서 말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다른 여타의 장르와 구별되는 것은 그 소재가 허구가 아닌 '사실' 즉 사실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현실의 사람, 장소, 사건 등의 현실세계를 표현하여 필름(Film)이나 ENG(Electronic News Gathering)로 제작된 구성물들을 포함하여 역사, 전기(傳記), 자연관찰, 여행까지도 포함하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큐멘터리의 특성

TV 다큐멘터리의 특성은 영상과 음향(音響)을 구사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동시성(同時性)이 있다. 그리고 단순하고 평면적인 사건전달이나 즉각적인 보도(報道)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진실하게 전해주는 현

실성(現實性)으로 다시 반복하지 못하는 생생한 현실의 단편을 잡아서 시청자에게 예상 이상의 충격을 주는 의외성(意外性)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현상(現象)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거나 제시하는 것보다 더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도용하는 특성이 있다(Kim, J., 2012).

TV 다큐멘터리의 또 다른 특징은 같은 영상매체를 바탕으로 사용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와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TV 다큐멘터리는 제작비용의 조달이 용이해진 반면 소재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송 전파는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그 결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비정치적이거나 친정부(親政府)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또한 TV의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에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될 수 있도록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다루더라도 독자적인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중립적(中立的)인 자세를 견지한다. 영상 미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TV 다큐멘터리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클로즈업(Close-up)이나 미디엄 샷(Medium shot)을 선호한다. 이는 풀 샷의 범위를 넘어서면 TV 화면은 명확성을 잃기 시작하고 작은 디테일들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TV 다큐멘터리는 화면구성보다는 편집을 중요시 한다. 롱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의 영상미(映像美)가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구현되지 못하므로 근접 샷 들을 편집에 의해 연결함으로써 일련의 특정한 디테일을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정서적인 친근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TV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주로 다큐멘터리의 연속성과 시퀀스(Sequence)를 영상보다는 나레이션(Narration)과 인터뷰(Interview)에 의해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하는 비디오테이프는 전자적 전기처리에 의한 메카니즘으로 적은 인원으로 현장에서 바로 녹화하여 바로 볼 수 있는 기동력과 신속성을 가지고 브라운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방영한다. 또한 작업과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프로그램의 보관 재활용 및 자료의 보존성이 짧고 어렵다(Park, S, 2008). 기술적

인 서술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TV 다큐멘터리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상과 음향(音響)을 구사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동시성(同時性)을 들 수 있다. 둘째, 단순하고 평면적인 사건전달이나 즉각적인 보도(報道)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진실하게 전해주는 현실성(現實性)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못하는 생생한 현실의 단편을 잡아서 시청자에게 예상 이상의 충격을 주는 의외성(意外性)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셋째, 단순한 현상(現象)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거나 제시하는 것보다 더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도용할 수 밖 에는 없다. 다큐멘터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격려하여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가치, 조건, 원인, 또는 조직체(組織體) 속에서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자신과 관련되는 중요성에 대해 사색하게 만드는 유익성(有益性)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유용성이 모두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면 그러한 정보의 파급은 다큐멘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청자의 수에 정비례해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TV 다큐멘터리는 매스미디어의 기술적(技術的) 지원과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Jun, P., 1995). TV 다큐멘터리의 특성은 동시성(同時性)과 시청자에게 예상 이상의 충격을 주는 의외성(意外性)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이용하여 유익성(有益性)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상 매체가 발전하면서 시청자와의 의사소통(Interaction)이 새로운 역할로서 중요하다.

2. 다큐멘터리의 종류와 표현 유형

1) TV 다큐멘터리의 종류

TV 다큐멘터리의 유형 분류는 학자에 따라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갈래로 구분된다. 로버트 할리아드(Robert L. Hilliard)는 다큐멘터리를 볼

굴의 인간의지와 송고함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 사회의 쟁점을 부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회문제 다큐멘터리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일상사 다큐멘터리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Hilliard, R. L., 1981). 노먼 스왈로우(Norman Swallow)는 다큐멘터리의 구성방법에 따라 사실의 기록물과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스트레이트 다큐멘터리(straight documentary), 기본적인 사실의 범위 내에서 연출가의 창의적인 묘사나 해석이 허용되는 세미 다큐멘터리(semi documentary) 그리고 연출가가 모든 것을 관장하여 그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되는 퍼스널리티 다큐멘터리(personality documentary) 등으로 나누었고, 브라이언 로즈(Brian G. Rose, 1993)는 내용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뉴스 다큐멘터리, 사회이슈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문화 다큐멘터리, 흥미거리 다큐멘터리 그리고 자연 다큐멘터리로 구분했다(Swallow, Norman, 1996). TV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에서부터 사실의 극화에 이르기 까지 그 구성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크게 스트레이트 다큐멘터리와 세미 다큐멘터리로 분류된다. 다루는 소재는 역사적 사실, 시사나 사회문제, 인물, 자연 등이며 이에 따라 역사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과학 다큐멘터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미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인물, 사건, 환경)의 묘사를 창의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 즉 기본적인 사실의 범위 내에서 작가나 제작자에게 해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Rose, Brian, 1985). 문화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의식주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음악, 미술, 책에 이르기까지 소재의 폭이 매우 넓다. 역사 다큐멘터리는 방송장비나 기술의 발전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문화유산의 발굴 및 영상복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조명 등을 그 주된 기획의도로 삼고 있다. 특히 3D 컴퓨터 그래픽 및 가상 스튜디오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역사 다

큐멘터리의 영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 다큐멘터리의 대중성을 넓혀가고 있다(Jang, H., Lee, J., O, J. & Hwang, Y., 2004)

2) TV 다큐멘터리의 표현 유형

최근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부 정책 지원, 신 한류 등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텍스트의 재 매개(Re-mediation)현상은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디어의 재 매개'란 하나의 미디어가 내용과 형식 차원에서 다른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표현양식, 사회적 관습 등을 답습, 개선(Improve)하거나 개조(Remedy)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Bolter & Grusin, 1999 / 2006). 최근에는 미디어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미디어 시장의 경쟁 심화로 미디어 텍스트의 재매개가 만화, TV,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이 경계를 넘어 보편화 되면서 문화콘텐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핵심사업전략으로 각광 받고 있다. 과거에도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전 미디어의 콘텐츠를 개조 혹은 변형하여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하게 담아내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대표적 영상매체인 영화와 TV는 발명 초기부터 소설이나 만화 등 기존 미디어의 텍스트를 재매개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이러한 재매개 현상이 점차 증가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심화되는 미디어 경쟁의 환경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HD와 컴퓨터 그래픽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쇄 매체에 등장하는 이례적 소재와 화려한 표현방식이 영화와 TV드라마에서도 영상화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Park, S., 2006; Park, S. & Lee, S., 2009). 미디어의 재매개 과정은 단순하게 콘텐츠와 콘텐츠의 관계가 아닌, 미디어와 콘텐츠의 상호작용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다매체, 다채널로 대변이 되고 있는 매체환경이 변화 속에서 다큐멘터

리의 장르적인 관습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소형화 경량화에 의한 기동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소재를 재발견하여 구성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3. 다큐멘터리의 발전 과정과 전달양식

1) 다큐멘터리의 발전과정

미국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이론가인 빌 니콜스(Bill Nichols)는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표현양식의 발전과정을 통해 정리하였고, 각각 양식이 등장한 사회, 역사적 배경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직접서술, 간접서술, 인터뷰 지향(Interview-Oriented), 그리고 성찰(Reflexive)의 4가지 양식으로 분류 했다(Nichols, 1981 & 1983). 그는 후에 위의 논의를 보완하여 다큐멘터를 다시 시적 양식(Poetic mode), 설명 양식(Expository mode), 관찰 양식(Observational mode), 상호작용 양식(Interactive mode), 성찰양식(Reflexive mode)으로 체계화 하였다. 이후 1990년대 이후 보여주는 변화들의 주요 특징은 사실과 허구의 혼종(Fact-fiction Hybridization), 수행적인 재현(Performative Representation), 포매팅과 시리얼화의 증가, 오락성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Austin & de Jong, 2008; Hill, 2007; Kilborn, 2003; Nichols, 2001; Zoellner, 2009).

2) 다큐멘터리의 전달양식

다큐멘터리의 전달 양식은 빌 니콜스(Bill Nichols, 1991 & 1995)의 기준에 준거하여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적 양식을 제외한 설명 양식(Expository Mode), 관찰 양식(Observational Mode), 상호작용 양식(Interactive Mode), 성찰양식(Reflexive mode), 수행적인 재현(Performative representation)으로 특징을 파악하였다. 첫째, 설명 양식(Expository mode)은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내레이션을 통해 관객에게 직적 소구하는 것이다. 내레이션으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어 영상 이미지는 내레이션 내용의 증거나 예증으로써 역할을 한다. 주장이나 관점의 제시 형태는 현장에 대한 관찰, 인터뷰 실험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둘째, 관찰자적 양식(Observational Mode)은 제작자의 명백한 개입 행위 없이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히 관찰 기록하는 것이다. 보이스 오버해설이나 자막, 연출된 재연 그리고 인터뷰조차 기피한다. 단순한 관찰자의 위치에 감독이 머무르며, 어떤 언급이나 개입 없이 한 사건을 따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적 양식(Interactive Mode)은 주어진 상황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카메라 앞에 등장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실’을 포착하려고 한다.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독과 출연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주된 구성방식이다. 네 번째, 성찰적 양식(Reflexive Mode)은 영화제작 과정을 드러낸 기존의 영화적 장치가 가졌던 효과를 깨뜨리려 한다 즉, 관객이 보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일 뿐이며 영화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용되는 기법은 패러디, 허구의 사용, 작가의 개입(목소리, 직접 등장)등 작가의 주관이 다른 어떤 양식보다 뚜렷하다. 다섯 번째, 수행적 양식(Performative Representation)은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구성된 상황에서 기획된 행위를 감독 자신이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한다. 일단 감독이 의도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경과나 결과에 대한 통제는 배제되고 종립적인 관찰이 이루어진다.

III.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된 조선시대 미용법 특성을 재매개성 이론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 인터넷 탐색,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성인 현실재현에 관한 논의점을 재매개성을 통한 이론에 접목하여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표현되는 현실 재현의 양상과 그것으로 획득되는 수용자와의 상호소통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특성은 문헌연구 및 인터넷 탐색을 이용하고, 재매개성 이론을 적용하여 유형별 특성을 정리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미용법을 재연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는 MBC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채널 A 다큐멘터리 스페셜 2부작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그 동안 조선시대 미용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소개되고 제작된 프로그램과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 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3편이 모두 조선시대 미용법을 중심으로 특정 시대를 중심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고, 본 연구자가 제작에 참여하여 조선시대 미용법을 시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재 매개성 유형별 분석을 달성에 좀 더 세분화된 유형별 분석에 도움이 되고자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조선시대 화장법의 재해석은 특별한 신분 계층이었던 기생 신분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왕실 여인과 사대부 여인의 화장법을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조선시대 화장법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독특한 화장법을 가지고 있었던 특수계층의 신분과 분대화장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인으로써 춤과 예술 등 다양한 예술적 부분이 다양하게 보여 진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용어 사전, 국내외 문헌들을 통한 검색을 통해 재 매개성의 일반적 의미를 종합한다. 조선시대 화장법은 시대, 인물, 방법에 대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작가 중심 창조적인 해석의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첫째, 채널 A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되

었던 다큐 스페셜 ‘메이크업 1~2부’는 2012년 3월 18일 1부 ‘절세가인의 조건’과 2012년 4월 8일 2부 ‘고운피부의 비밀’의 2부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각 50분씩 TV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 여인들 중에서 인현왕후와 황진이 가상의 인물 두 사람을 대표성으로 하여 미용법과 화장법을 재현하였다. 둘째, MBC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코리아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편은 2012년 7월 6일 50분으로 제작되어진 TV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선시대 여인들 중에서 사대부 여인 중 미혼과 결혼한 여인, 그리고 황진이를 대표성으로 하여 미용법과 화장법을 재해석하여 재현하였다. M. Park(2008)의 선행연구에서 재 매개는 Mediation(매개: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에 다시, 재(再)를 의미하는 영어 접두사 re가 붙으면서 ‘다시 매개함’(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을 다시 함)을 뜻한다.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은 “다큐멘터리란 삶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寫眞)이며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창조적으로 해석(解釋)하는 것”이라 정의 했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적인 사건이나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영상과 나레이션(Narration)을 통해 논픽션(Non-Fiction)의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특성과 개념들 그리고 재매개성 이론의 적용을 통한 관련된 분석과정의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된 재 매개성 유형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 2006). 은 ‘재 매개(Re-Mediation)’라는 저서에서, 모든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들과의 ‘상호관계’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장 하였다. M. Park(2008)의 선행연구에서 재 매개는 Mediation (매개 :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에 다시, 재(再)를 의미하는 영어 접두사 Re가 붙으면서 ‘다시 매개함’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다시 함)을 뜻한다.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표현양식, 사회적 관습 등을 차용하거나 개선, 개조하여 자신의 것을 만드는 미디어의 논리”, 즉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를 차용(Borrow), 개선(Improve), 개조(Refashion)”하는 것으로 재 매개를 정의하였다. 볼터와 그루신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재 매개를 설명한다. 재 매개는 매개의 개개로써 텔레비전과 웹의 관계에서처럼 다른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를 재생산하고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 매개는 매개와 실재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레이션과 시뮬라크르 개념과도 유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 매개는 다른 미디어를 개조하거나 복구하는 개혁적 성향이 있다. 재 매개는 비매개와 하이퍼 매개라는 상반된 듯 한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 변증법적 관계에서 설명된다. 비 매개는 미디어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미디어들로부터 많은 것을 빌려온다. 텔레비전 방송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거나 현장감 있는 장면을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 그림,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가져와 재 조합한다. 비 매개와 하이퍼 매개는 오랜 역사를 가지며 동시에 당대의 문화적 가정 속에서 작동한다. 비 매개는 수용자가 미디어의 존재를 잊고 자신이 미디어의 내용과 즉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일련의 믿음과 관행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시대와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인식될 수 있다. 비 매개성은 전통미디어의 요소로서, 일인칭 시점과 선형적 전개 특징을 보이며 아침드라마 혹은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비매개성의 투명성을 통해 수용자들은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이야기를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 또 다른 재매개의 논리인 하이퍼 매개는 시청자들이 캐릭터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재매개 과정에서 미디어의 특성과 콘텐츠가 상호작용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비 매개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디어에서는 실제의 현장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흥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면서 현실과 미디어를 연결시켜

주는 또 다른 매개 작용을 한다. 즉흥성은 항상 새로운 작품으로 재생산되게 하며 퍼포먼스의 일회성을 강조한다. 즉흥성은 하나의 전략으로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표현 방법이며 인간의 자유로운 발상을 촉구한다.

2. 조선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재매개 유형별 특성

1) 비매개적 즉흥성

조선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재매개성 유형별 특성으로 비매개적 즉흥성, 동시성이 보여 졌다. 설명양식(Expository Mode)을 통해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한 내레이션으로 관객에게 직적 소구하는 것이다.

주장이나 관점의 제시 형태는 현장에 대한 관찰, 인터뷰 실험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상호작용적 양식(Interactive Mode)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카메라 앞에 등장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실'을 포착하려고 한다.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독과 출연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주된 구성방식이다. 조선시대 화장법을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재매개적 특성은 그 속성과 형태가 변질 없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 수용자에게 현실성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성취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화장도구 및 시대상을 반영한 장면들의 연출이나 전문가의 인터뷰 형식을 통하여 즉흥성과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채널 A '메이크업'편



Figure 1.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2.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3.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4.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5.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6.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7.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8.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과 MBC 스페셜 ‘코리안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다큐스페셜 에서는 아래 Figure 1~4 에서 조선시대 화장도구 및 시대적인 시대상을 반영한 장면들의 연출을 통해 재 매개적 즉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채널 A ‘메이크업’ 편과 MBC 스페셜 ‘코리안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다큐 스페셜 에서는 Figure 5, 6 의 전문가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TV 다큐멘터리의 재 매개적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하이퍼 매개적 상호작용성

조선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재매개성 유형별 특성으로 하이퍼 매개적 상호 작용성, 현실성이 보여 졌다. 성찰적 양식(Reflexive Mode)을 이용하여, 영화 제작 과정을 드러낸 기존의 영화적 장치가 가졌던 효과를 깨뜨리려 한다. 즉, 관객이 보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일 뿐이며 영화일 뿐

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용되는 기법은 패러디, 허구의 사용, 작가의 개입(목소리, 직접 등장) 등 작가의 주관이 다른 어떤 양식보다 뚜렷하다. 또한 수행적 양식(Performative Representation)으로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구성된 상황에서 기획된 행위를 감독 자신이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한다. 일단 감독이 의도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경과나 결과에 대한 통제는 배제되고 중립적인 관찰이 이루어진다. 조선시대 화장법을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재매개적 특성은 TV 다큐멘터리와 기술의 존재를 은폐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미지와 수용자를 매개해 주는 관찰자로서 직접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수용자에게 영상이라는 존재를 잊게 만들고, 실재의 세계와 연결된 완벽한 재현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였다.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채널 A ‘메이크업’ 편과 MBC 스페셜 ‘코리

안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다큐스페셜 에서는 아래 Figure 7~10 에서 TV 다큐멘터리 화면에 직접적인 전문가의 화장시연을 통한 연출을 통해 재 매개적 상호작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채널 A '메이크업' 편과 MBC 스페셜 '코리

안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다큐스페셜 에서는 조선 시대 화장법을 재현하기 위한 화장 재료를 모델이 직접 사용하는 듯한 행동 등은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현실성이 잘 보여지고 있다(Figure 11~14)



Figure 9.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10.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11.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12.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13.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14.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3) 하이퍼 매개적 문화흡수성

조선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재매개성 유형별 특성으로 하이퍼 매개적 문화 흡수성, 의외성이 보여졌다. 설명양식(Expository Mode)을 이용하여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 내레이션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 소구하는 것이다. 내레이션으로 부터 정보를 얻게 되어 영상 이미지는 내레이션 내용의 증거나 예증으로써 역할을 한다. 주장이나 관점의 제시 형태는 현장에 대한 관찰, 인터뷰 실험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성찰적 양식(Reflexive Mode)을 통해 영화제작 과정을 드러낸 기존의 영화적 장치가 가졌던 효과를 깨뜨리려 한다. 즉, 관객이 보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일 뿐이며 영화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사용되는 기법은 패러디, 허구의 사용, 작가의 개입(목소리, 직접 등장)등 작가의 주관이 다른 어떤 양식보다 뚜렷하다. 기존 시각 미디어의 형식과 속성을 차용하

는 형태로 타 미디어의 특성과 조합되면서 익숙하며 동시에 낯선 이미지로 재창조 된다. 조선시대 화장법을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재매개적 특성은 문화 흡수를 통한 확장성은 현실세계의 형태를 제3의 객체로 변형시켜 초현실의 이미지로 현실 세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였다.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채널 A '메이크업' 편과 MBC 스페셜 '코리아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다큐 스페셜 에서는 아래 Figure 15~18에서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정보를 내레이션 또는 글자자막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내레이션 및 글자자막을 통한 설명을 통해 다큐멘터리의 재매개적 의외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채널 A '메이크업' 편과 MBC 스페셜 '코리아 뷰티, 세계를 유혹하다' 다큐 스페셜 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드라마를 보는 듯한 상황연출 등에서 재매개적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9~22)



Figure 15.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16.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17.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18.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위에서 보여 지는 연구 결과는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된 조선시대 미용법 특성으로, 재 매개성 이론

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알아본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 Table 1 다음과 같다.



Figure 19.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20. MBC Special Documentary 'Korean Beauty'



Figure 21.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Figure 22. Channel A Documentary 'The Make-up'

Table 1. The Focus on the Re-Mediation TV Documentary of the Joseon Dynasty Beauty Make-up











The re-mediation type of TV documentary features		Expressed Features	Channel A Documentary	MBC Special Documentary
Immediacy	Improvis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documentary process is expressed property and the form will be expressed without deterioration 	makeup tools		
		Directing a scene that reflects the era Content		
	Concur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hieving the agreement on the reality to viewers through a logical relationship to obtain 	professional interviews		

Table 1. Continued

	The re-mediation type of TV documentary features		Expressed Features	Channel A Documentary	MBC Special Documentary
Hyper Mediacy	Inter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Forms to conceal the presence of a TV documentary and Technology 	professional make-up demonstration		
	Re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e watching a vivid realism directly Perfect reproduction is associated with world of reality 	This model seems to act directly using cosmetic materials		
Hyper Mediacy	Culture absorb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rrowing type and form of the properties of an existing visual media With this combination of characteristics and other media familiar feeling At the same time recreating a strange image 	Description Through the narration and text subtitles		
	Unexpected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real world in the form of variations to a third object Providing catharsis that can be obtained in the real world with images of surreal 	Director of TV viewing situation like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전통문화와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하고, 또한 미디어의 재매개성적인 유형별 특징을 통해서 인간적인 의사소통(Interaction)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된 조선시대 미용법 특성을 재매개성 이론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류하여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화장법에 표현된 즉흥성과 동시성은 화장법을 TV 다큐멘터리에 표현되는 과정에서 그 속성과 형태가 변질 없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논리적인 관계를 통해 수용자에게 현실성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성취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화장도구 및 시대상을 반영한 장면들의 연출이나 전문가의 인터뷰 형식을 통하여 즉흥성과 동시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상호작용성과 현실성은 TV 다큐멘터리와 기술의 존재를 은폐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미지와 수용자를 매개해 주는 관찰자로서 직접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수용자에게 영상이라는 존재를 잊게 만들고, 실재의 세계와 연결된 완벽한 재현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였다. 전문가의 화장시연과 화장재료를 모델이 직접 사용하는 듯한 행동 등은 이러한 상호작용성과 현실성이 잘 보여지고 있다. 셋째, 문화흡수성과 의외성은 기존 시각 미디어의 식과 속성을 차용하는 형태로 타 미디어의 특성과 조합되면서 익숙하며 동시에 낯선 이미지로 재창조 된다. 또한 확장성은 현실세계의 형태를 제3의 객체로 변형시켜 초현실의 이미지로 현실세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였다. 나레이션 및 글자자막을 통한 설명,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듯한 상황연출 등에서 의외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매체의 활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재매개성을 통한 조선시대 화장법은 새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주목할과 매체에 대한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매체로서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화장법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기초 연구 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화장법은 사례가 많지 않고 주로 2D를 통한 TV다큐멘터리 제작형식의 국내 연구실정에서 본 연구가 제한적이거나 실증 연구를 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하는데 본 연구가 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본 연구는 TV 다큐멘터리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통문화 유산 및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보탬이 되고자 행하여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

한 지속적인 관찰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ustin, T. & de Jong, W.(Eds.). (2008), *Rethinking Documentary: New Perspectives, New Practices*. maidenhead, UK: OPU.
- Barn, K. (2013), The Joseon Dynasty make-up of the Act applies and the holographic digital video production for basic research, *Proceedings of 2013 Conference 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pp. 109-112.
- Barn, K. (2012), A Study on Rouge and Make-up of the Far East (Ver.1) ; The Korea, China, Japan, Main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8(4), 777-789.
- Brian G. Rose, (1993), Television and the Performing Arts, *Dance Theory dictionary*, 2011. Medical Korea
- Choe, C. (1990), *Korea Broadcasting Theory*, Seoul : Nanam, 162-164.
- Hilliard, R. L., (1981), *Writing for Television and Radio, Fourth Edition*, New York: Hasting House, 139.
- Hill, A. (2007), *Restyling Factual TV: The Reception of News, Documentary and Reality Genres*. Abingdon, UK: Routledge
- Jang, H., Lee, J., O, J. & Hwang, Y. (2004), TV documentary; *Mince the world*. Seoul : Saemteo
- Jay David Bolter & Richard Grusin, (2006), *Remediation*, Seoul : Communication Books, 52-56.
- Joe, Y. (2011), Comparing Augmented Reality and Collage in the view of remediation theory, *Journal of Digital Design*, 11(1), 153-162.

- Jun, P. (1995), *Video Documentary*, Seoul: Nanam, 19-20.
- Kilborn, R.(2003), *Staging the Real: Factual TV Programming in the Age of Big Brother*.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im, J. (2012). The principal research associate in gender awareness and self-reflection parameters of non-transparency in the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39, 207-218.
- Lee, J. (1993), Broadcasting Commission, 'Study on the television program classification criteria', 49.
- Lee, J. (2007), Visible radio as a multimedia - Remediation, multi-sensory modalities, and media experience, *Media and society*, 15(3), 74.
- Nichols, Bill (1981), *Ideology and the Image: Social Representation in the Cinema and other Media*,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Nichols, Bill (1983), The Voice of Documentary, *Film Quarterly*, 36(3), 17-30.
- Nichols, Bill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Park, S. (2008), Characteristic of Media Performance on the Stage space from the viewpoint of Remediation, *Journal of Digital Design*, 8(2), pp.45-54.
- Rose, Brian, (1985), *TV Genre*, Westport: Greenwood press, 244-245.
- Swallow, Norman. (1996), *Factual Television*, New York: Hasting House. 176-177.
- Yeon, H. (1993), *A Critical Study of 'Fact', 'Reconstruction' Faces and Genre-Mixed Features of Drama Documenta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32-33.
- Zoellner, Anna (2009), Professional Ideology and Program Conventions: Documentary Development in Independent British Television Produc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2, 503-536.

Received (August 15, 2015)

Revised (September 3, 2015; October 19, 2015)

Accepted(October 21, 2015)